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30일(수) 총 5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과	담당자	• 에너지신사업팀장 김일웅 ☎440-4301 • 담당자 원나리 ☎440-43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글로벌 수소기업 유치

- 현대자동차, SK E&S, Plug power 등 수소 앵커기업과 함께 수소 대중교통 시대 선도 -
- 연료전지, 수전해 기술 도입 및 수소버스 전환 등 수소산업 육성 본격화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3월 30일 수소산업 분야 세계 일류기업인 플러그파워 투자 유치와 더불어 수소대중교통 전환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시는 산업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SK E&S, 현대자동차, Plug Power(플러그파워) 등과 함께 『글로벌 일류 수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과 『수소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재현 서구청장, 이정관 LH공사 부사장, 권형균 SK E&S 부사장, 유원하 현대차 부사장, 최숙아 Plug Power 부사장, 이지영 해일로하이드로젠(약칭 Halo*) 대표이사가 협약당사자로 나섰고, 김교홍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신은호 인천시의회의장, 강원모 부의장, 임동주 산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모빌리티 전시 행사에 이어 협약식이 진행됐다. (* Halo : 플러그파워 - SK 외투합작법인)

《글로벌 일류 수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그동안 시는 산업부와 함께 글로벌 일류 수소기업인 플러그파워 투자유치를 위해 적정부지와 전력공급 등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은 투자유치를 위해 지난해 10월 플러그파워 앤드류 마시(Andrew Marsh) 대표를 만나 청라지역의 수소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소개하고 많은 공감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플러그파워는 미국 내 수소지게차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고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수소기업으로, 지난 1월 SK E&S와 아시아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인천 청라지역에 연료전지 및 수전해 설비* 생산체계(기가팩토리; Giga-factory)를 구축, 2024년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으로 국내 공급은 물론 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 연료전지 : 수소를 활용하여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

수전해 설비 : 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

시는 인천 청라지역에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소분야 외국인 투자가 실현되는 만큼, 인천지역의 노후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의 업종전환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소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한편 시는 SK E&S, 현대차, 플러그파워 등 수소앵커기업과 함께 온실가스, 미세먼지 발생 없는 청정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 2,037대 중 우선 수소버스 700대를 2024년까지 조기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전용 수소충전소를 2024년까지 12개소, 2025년 이후 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SK E&S, 해일로(Halo)에서는 액화수소 공급,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등 수소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현대자동차에서는 수소상용차 보급과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시는 수소시내버스 대규모 전환을 위해 정부차원의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수소버스는 달리는 공기청정기로 승차감과 연비가 우수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수소시내버스 전환을 통해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수소의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은 공항·항만을 비롯한 수도권 수소수요를 기반으로 수소 생산과 운송·저장·공급·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밸류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 수소산업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시는 SK E&S, 현대모비스, GS에너지에 이은 이번 플러그파워 투자유치를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 수소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소에너지가 경제적 효과를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에서 환경특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반드시 가야할 길” 이라 강조하면서 “이번 플러그파워 투자유치를 계기로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외 최고 수소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허브, 글로벌 수소산업의 중심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수소산업 외투기업 유치 및 수소 대중교통 선도도시 조성 업무협약식 추진 계획

□ 협약개요

< 협약명 및 체결대상 >

- ▶ <협약Ⅰ> : 「글로벌 일류 수소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인천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서구청, 경제청, LH, (美)PLUG POWER, SK E&S
- ▶ <협약Ⅱ> : 「수소 대중교통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 인천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美)PLUG POWER, SK E&S, 현대자동차

- (일시/장소) 2022. 3. 30.(수) 14:00~15:00/인천시청 중앙홀(본관1층)
- (행사참석) 50명 내외(운수업체 대표, 각 업체·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외국기업 국내 생산 시설(Giga Factory) 투자 유치
 - 수소 대중교통(시내버스) 전환 선도 및 기반시설 확충

□ 세부계획(안)

- <제1부> : 수소 모빌리티 전시 및 설명회(의회 주차장)
 - 수소 승용차· 시내버스· 화물차· 청소차 제원 설명
 - 수소청소차 조작시연 및 기념촬영
- <제2부> : 업무협약식(시청 중앙홀)
 - 업무협약 체결 및 기념촬영

< 업무협약서 주요 내용 >

「1. 글로벌 일류 수소기업 투자유치」	「2. 수소 대중교통 선도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 - 선진 수소 기술 도입 등 정책 및 연구개발(R&D) 지원 • 인천시 - 인천지역 내 경쟁력 있는 수소 생산을 위한 정책 지원 • 인천서구청 - 수소산업 지역수용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 SK/PlugPower - 수소사업 협력, 인천시 내 수소산업 육성 및 고용 창출에 기여 • 인천경제청/LH공사 -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제공 및 부지제공 등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부 - 수소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연구개발(R&D) 지원 • 환경부 - 수소 대중교통 전환 및 충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인천시 - 수소버스 700대 전환(23~24년) 및 액화 충전소 인프라 구축 지원 • SK/PlugPower - 액화수소 공급, 충전소 운영을 통한 수소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 현대차 - 시내버스, 고상버스, 트럭 등 수소 대중교통 보급 협력 및 기술 국산화